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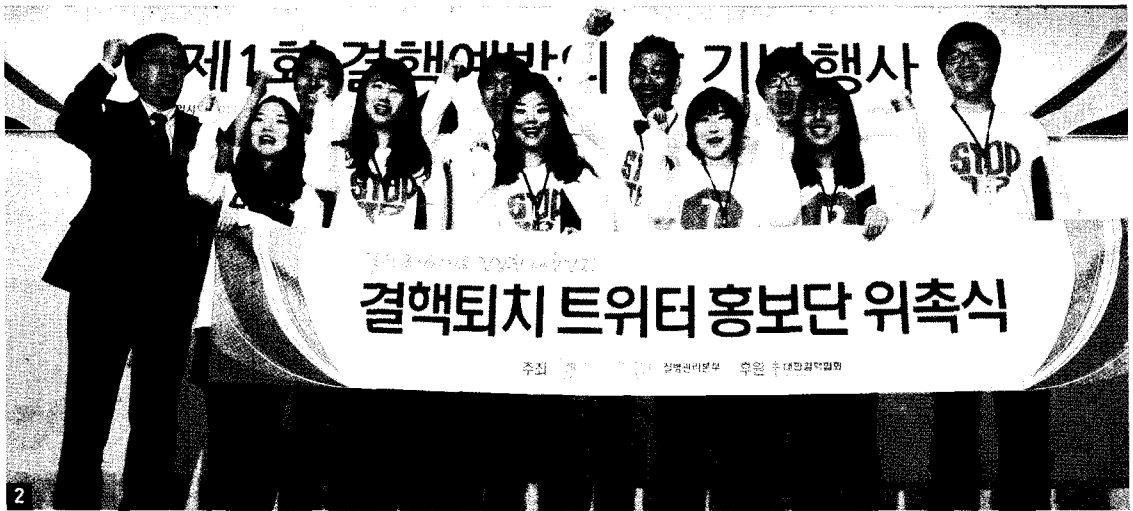
## 결핵환자에게 현실적 지원과 정부대책 발판 되길...

3월 24일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한 제1회 결핵예방의 날이다. 「세계항결핵및폐질환연맹」(IUATLD)은 결핵균 발견 100주년이던 지난 1982년 3월 24일 세계 결핵의 날(World TB Day) 제정, 공표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연맹 회원국 정부 및 결핵단체는 이 날을 맞아 결핵 퇴치 및 예방 홍보를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둔화된 결핵 감소세와 함께 최근 날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다제내성 결핵, 슈퍼결핵의 증가 및 학교 집단발생 증가 등으로 결핵 위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결핵 대처를 위하여 결핵예방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또한 지체 없는 결핵환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결핵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강화를 골자로 결핵예방법을 전면 개정, 올해 1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결핵퇴치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지난 3월 24일 열린 기념식 행사에서도 잘 나타났다. 신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결핵 공익광고를 통해 “결핵 조기퇴치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의미심장한 한 마디로 정부의 적극적



인 결핵퇴치 의지를 천명하였고, “결핵, 새로운 도약!”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결핵정책 브리핑에서는 2011년 달라지는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2020년까지 우리나라 결핵 상황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결핵퇴치 2020 Plan”에 대한 영상물이 방영되기도 하였다.

이번 기념식 행사에서 또 한 가지 관심을 끈 것은 ‘결핵퇴치 트위터 홍보단’의 출범.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 북’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한 홍보가, 기원전 7천년 경 석기시대 화석과 기원전 5천년 경 고대 이집트 미이라에서도 흔적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오랜 질병인 결핵 퇴치에 활용된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 결핵홍보도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

에 기쁘기도 했다.

지난 2008~2009년 2년간 결핵퇴치홍보대사로 활동했었던 가수 김창렬 씨를 단장으로 1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이 트위터 홍보단이 우리 국민들에게 결핵의 실상 및 올바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념식이 끝나고 저녁에는 우리 대한결핵협회와 한국릴리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나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으로 듣는 결핵이야기” 자선콘서트가 인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되었다. 예술과 결핵의 접목을 통해 국민들에게 결핵을 보다 쉽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번 자선콘서트에서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하이라이트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등이 연주되었다. 극 중 결핵을 앓

1 제1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식 수상자들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념촬영 2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김창렬 단장을 필두로 한 결핵퇴치 트위터 홍보단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3 이번 결핵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김희진 원장,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신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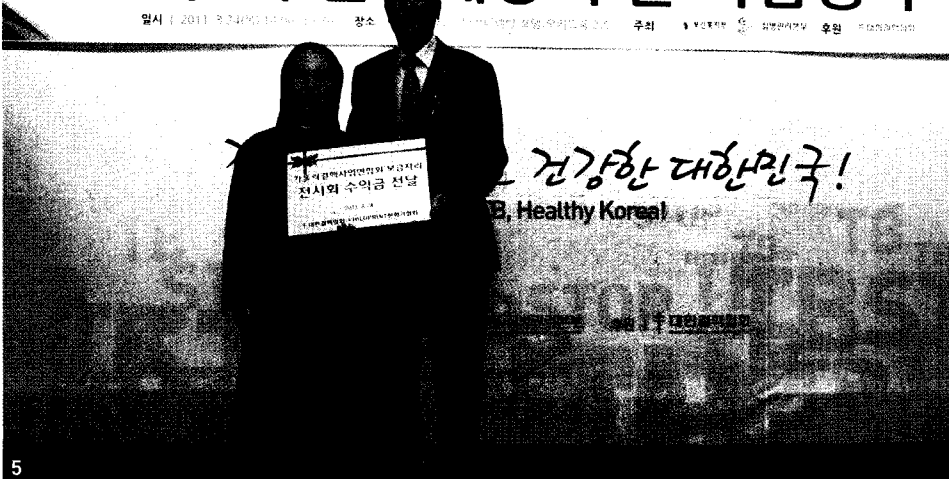
# 제1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

일시 : 2011. 9. 24(목) 14:00 ~ 17:00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SK대우빌딩 3층 주최 : 보건복지부 후원 : 대한결핵협회



# 제1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

일시 : 2011. 9. 24(목) 14:00 ~ 17:00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SK대우빌딩 3층 주최 : 보건복지부 후원 : 대한결핵협회



# 제1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

일시 : 2011. 9. 24(목) 14:00 ~ 17:00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SK대우빌딩 3층 주최 : 보건복지부 후원 : 대한결핵협회





4 한국릴리 아니웁스트하이슨 대표가 순천기독재활원에 자선음악회 수익금을 전달하고 있다. 5 결핵환우돕기 판화전시회 수익금을 결핵요양시설인 보금자리에 전달하고 있는 문영목 회장 6 올해 복십자대상은 박선옥(결핵연구원 영상의학 전문)에 씨가 수상하였다. 7 2009년에 이어 홍보대사를 맡은 산곡악단 소리아의 신명나는 공연한판

고 있는 여주인공인 '미미' 를 통해 관객들에게 예술 작품과 결핵과의 연관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청각을 거의 잃어가는 과정에서도 '운명' 이라는 불멸의 명작을 작곡한 베토벤의 인생을 되새기며 결핵으로 힘들고 지친 결핵환자들에게도 삶의 희망을 전하는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공연자체로 끝나지 않고 수익금을 결핵환자요양시설인 '순천기독결핵재활원' 에 기부할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를 한국릴리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업체 및 단체와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앞서 언급한 기념식 및 자선콘서트 이외에도 대한결핵협회는 이번 결핵예방의 날 주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결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KBS를 통해 방영된 “생로병사의 비밀-사라지지 않은 결핵, 당신을 노린다” 편을 통해서도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효과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결핵에 대처하는 방법 및 선진국의 결핵관리 사례 등을 소개하였고,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한 결핵수기 공모를 통해서도 결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환자/가족/친구들의 이야기를 접수, 그 중 우수 사연을 선정하여 현재 치료중인 환자들에게는 치료지원금을, 완치가 되었다라든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결핵사연 중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몇몇 환자는 MBC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 시대” 를 통해 사연이 소개되고 해당 환자와 결핵전문가 인터뷰를 방송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결핵의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청취자 모금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환자들이 희망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협회 홍보담당자로서 대국민 결핵홍보를 위한 CF며 언론보도며, 행사 진행 등 많은 업무를 진행해보았지만 이번 라디오 방송을 통한 환자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처지에 아직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결핵신약 치료를 위해 매달 9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마련할 길이 없어 계속 빛을 지면서 어렵게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환자분, 심각한 결핵후유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생계까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이 시급한 환자들에게 작으나마 삶의 용기와 희망을 드린 것 같아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이렇듯, 정부차원에서도 결핵퇴치를 정책적으로 천명한 가운데,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결핵퇴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핵퇴치를 위한 각계 각층의 참여가 이어질 거라고 기대해 본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결만 번지르르한 홍보성 구호나 행사에만 그치지 말고 결핵으로 인해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원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